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일시	2015. 4. 6(수) 총 4매(본문2, 참고2)	
담당 부서	주택건설공급과	담당자	• 과장 김종학, 사무관 민경철, 주무관 노운용 • ☎ (044)201-3366, 3367
보 도 일 시		2016년 4월 7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6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“골치 아픈 결로 줄이기, 내 손으로”

- 결로 저감 위한 생활환경 안내서(가이드), 전국 배포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공동주택 결로 저감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물*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 제작하여 전국 아파트 단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.

※ 첨부 : 결로저감을 위한 생활환경 홍보물(A3(420×297mm) 컬러 포스터 형식)

- 이번 홍보물 배포는 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결로 현상에 대하여 입주민의 이해를 높이고, 가정에서 작은 노력으로 결로를 줄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.
- 홍보물에는 결로원인 및 환경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「세대 내 공간별 결로현상을 줄이기 위한 도움말(TIP)」, 「결로와 곰팡이 발생 시 제거요령」, 「건강한 가습기 사용요령」 등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.

-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제작된 홍보물이 기존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시·군·구청과 전국의 관리주체에게 적극 전파할 예정이며,
-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규 공급하는 아파트(한국토지주택공사) 입주 안내문에 이번 홍보물을 포함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이 홍보물은 전국 시·군·구(주택과)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배부되며,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정책마당/정책자료에서 내려 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민경철 사무관(☎ 044-201-336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결로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생활환경



결로란 무엇인가?

💡 결로는 우리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연현상입니다.

겨울철 유리창에 발생하는 물방울, 여름철 차가운 물 컵 표면에 생기는 물방울 등 결로는 언제, 어디서나 발생조건이 갖추어지면 생기는 자연현상입니다.



💡 결로는 발생시 즉시 제거해 주세요!

결로를 방지하면 곰팡이 발생 확률이 높아지며, 곰팡이는 알레르기 및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

결로발생시 제거요령

결로현상에 의한 물방울은 곰팡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즉시 닦아내고 선풍기 등으로 잘 말린 후 제습기 또는 주기적인 환기를 통하여 습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.

공동주택내 발생가능 곰팡이들



곰팡이발생시 제거요령

곰팡이 제거시에는 환기가 되는 상태에서 염소계소독제(락스 등 제품별 사용법 준수) 또는 구연산(물과 1:10비율로 희석)을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.

공동주택 결로발생 환경



💡 신규 입주단지의 결로환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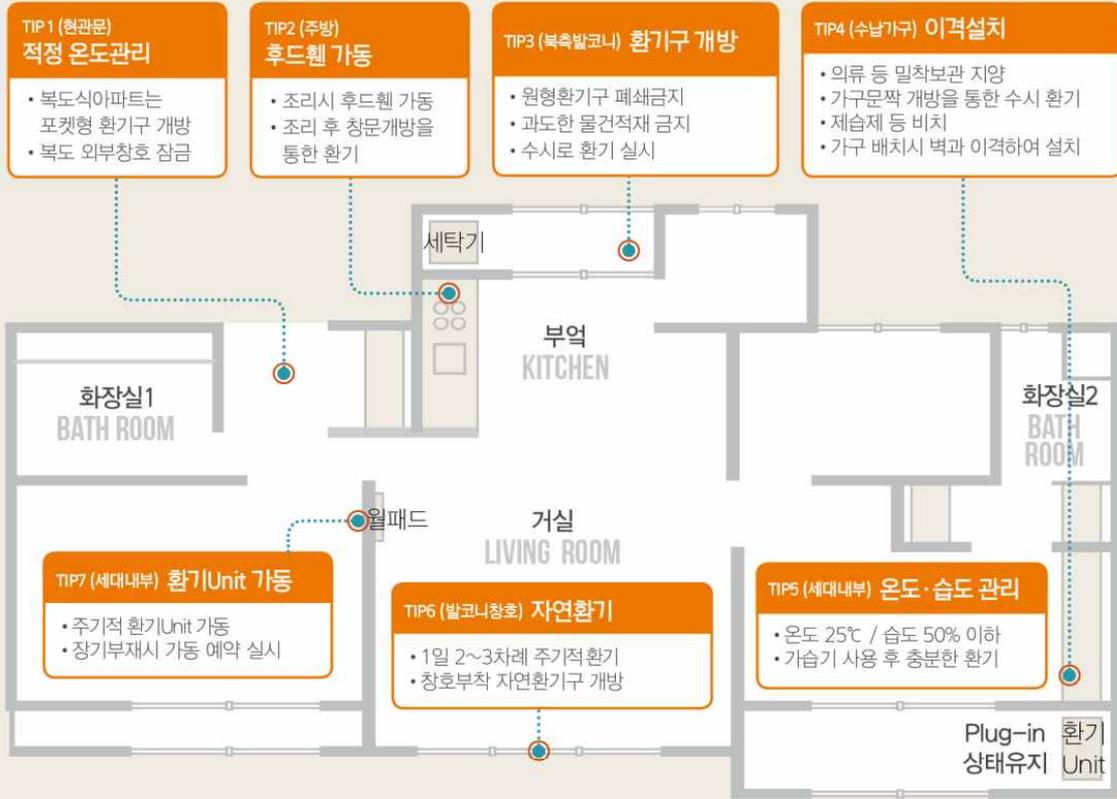
입주 초기 단지는 콘크리트, 방바닥 미장 등으로부터 습기가 방출되어 실내 습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,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.

💡 건강한 가습기 사용요령

*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 정책플러스 기사자료

- ① 가습기는 세제보다 식초, 베이킹소다, 소금물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② 세균번식을 막기 위하여 정수기 물보다 수돗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③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은 피합니다.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가 갇혀있고 분무된 수증기가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면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여 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
- ④ 가습기 사용 전/후 하루 2번(10분 이상) 실내환기를 실시하면, 곰팡이 등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입주자의 결로 줄이기 TIP!



▶ 욕실 공간의 특성

욕실은 샤워, 목욕 등 생활여건상 많은 수증기가 발생하는 공간입니다. 수증기가 원활히 배출되지 않거나, 현관 또는 드레스룸 등 인접한 공간으로 확산될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.

- 욕실에 창문이 있는 경우 창문을 열어 주기적으로 환기
- 욕실 사용시 환풍기 가동
- 샤워(목욕) 후 출입문을 닫은 상태로 환풍기를 가동하여 수증기 제거

▶ TIP

인접공간으로의 수증기 확산방지를 위하여 **20분이상** 가동 권장

▶ 발코니공간의 특성

발코니는 서비스면적으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입니다. 장마철과 겨울철 약간의 습기에 의해서도 쉽게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

- 발코니 원형환기구 상시 개방
- 겨울철 하루 2회 이상, 충분한 시간동안 환기
- 벽에 밀착하여 짐을 놓거나, 창고(선반)문 등 추가시설물 설치시 결로발생 확률이 높아짐 (특히 대피공간 내 대피에 장애가 되는 물건적재는 위함)
- 세탁공간일 경우, 세탁기 가동시 환기 실시(미가동시에도 주기적 환기)

『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제정』 (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845호) 『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 제정』
 * 적용범위 등은 고시내용 참조 * 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국토교통부 + LH에서는 국민의 주거안정 및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

※하루 2~3차례 환기를 해주면 오염된 실내공기의 정화와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